

# [백 투 더 동아/11월 20일]일본 사무라이는 백제 싸울아비가 뿌리?

동아일보 | 업데이트 2017-11-20 09:14



미즈노 토시카타(水野年方·1866~1908)가 그린 사무라이 그림. 인터넷 캡처

인터넷에서는 일본 봉건 시대 무사를 뜻하는 '사무라이'가 사실 한국어 '싸울아비'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2002년 개봉한 영화 '싸울아비' 역시 이런 주장에 근거해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이런 주장은 얼마나 믿을 수 있는 걸까.

정답부터 말하자면 실제로 싸울아비가 변해 사무라이가 됐을 확률은 제로(0)에 가깝다. 싸울아비는 서울 배화여고 등에서 국어 선생님이로 일하면서 라디오 드라마 극본도 썼던 김영곤 작가(1926~1988)가 1960년대 만들어낸 표현이기 때문이다.

1962년 오늘(11월 20일)자 동아일보는 서울중앙방송(KA·현 KBS)에 사극 '강강수월래'를 연재하던 김 작가 인터뷰 기사를 내보냈다. 이 기사는 "옛날 武士(무사)를 '싸울아비'라는 현대어로 바꾸어 놓은 것만도 선생 아닌 작가로서의 자부심을 느낀다고 자랑 아닌 겸손을 앞세우고 있다"는 문장으로 끝난다.

본문으로 바로가기

### 『訓長作家』…金英坤씨

新編시대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KA의 연속극 라마 『가장수월래』(밤 9·40-10·00)는 21일로 30회를 맞는다. 저금도 일남지방에 남아 있는 史蹟「望夫石」에 얽힌 哀話와 함께 新編 高句麗의 忠節을 그린 史劇은 三十三回의 대단원

## 史實再現에 充實

(두번째放送史劇「강강수월래」)

는 朴提上의 史극을 演 出하면서 그의 높은 藝術적 才力을 그대로 「마이 크」에 옮겼을 것이다. 朴提上의 史극은 演 出하면서 그의 높은 藝術적 才力을 그대로 「마이 크」에 옮겼을 것이다.



고려서구실을 한 위력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지난正月初에 演 出한 『安市城의 忠勇』을 내놓았던 金 英坤씨는 「訓長作家」라 는 弟子들의 別명까지 들게 되었다고... 옛것을 아는데 새로운 것을 찾아 내는 데 史實에 지나치

史劇은 三十三回의 대단원 을 앞두고 마지막 「깃 치」를 내기에 바쁘다. 高句麗와 倭에 인지로 잡혀간 王의 妻 아유를 구해내고 스스로는 倭 의 酷刑으로 사라진 朴 提上의 氣概는 史家를 爲해 전해지기는 했 나 방송극되기는 이 기 처음!

麗花女高에서 교편을 쓰 있는 작가 金英坤씨 는 朴提上의 史극을 演 出하면서 그의 높은 藝術적 才力을 그대로 「마이 크」에 옮겼을 것이다.

海 朴씨의 종손과도만 나보고 사실에 충실하 려했다는 작자는 교실에 서내우는 역사보다 「라 디오」를 통한 사극이 산 蹟을 두루 살피고 家 族의 遺 蹟을 두루 살피고 家 族의 遺 蹟을 두루 살피고 家 族의 遺 蹟을 두루 살피고

관한 고 史蹟을 두루 살피고 家 族의 遺 蹟을 두루 살피고 家 族의 遺 蹟을 두루 살피고 家 族의 遺 蹟을 두루 살피고

적인 기교에는 미숙한 점이 있기는 하나 朴提 上의 史實을 再現하고 옛 史蹟을 두루 살피고 家 族의 遺 蹟을 두루 살피고 家 族의 遺 蹟을 두루 살피고 家 族의 遺 蹟을 두루 살피고

가로서의 자부심을 느 꼈다고 자랑하느니만큼 앞세우고 있다.

이 인터뷰를 통해 신라 시대를 배경으로 삼은 이 라디오 연속극에서 싸울아비라는 낱말을 처음 썼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에도 TV·라디오 연속극이나 소설, 영화 같은 픽션에서 싸울아비라는 낱말을 쓰면서 이 낱말이 원래 있던 것처럼 생각하는 이들 숫자도 늘어나게 됐다.

반면 일본에서 사무라이라는 낱말은 최소 16세기에 등장했다. 따라서 만약 두 낱말이 연관이 있다면 오히려 일본어 사무라이를 보고 싸울아비라는 낱말을 만들어 냈을 확률이 높다. 물론 실제 가능성은 희박한 이야기다.

## 본문으로 바로가기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일본어 사전 '고지엔(鑑辭苑)'에 따르면 사무라이는 '사부라푸(サブラフ)'의 연용형(連用形) 명사형 '사부라이(さぶらい)'가 변한 말이다. 같은 사전은 사부라이를 '주군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것 또는 그 사람'이라고 풀이한다. 사부라이를 한자로 적을 때는 모실 시(侍)를 쓰는 이유도. 사무라이 역시 마찬가지로 한자로 쓰면 '侍'다.

같은 사전은 사부라이가 원래 '헤이안(平安)시대(794~1185 또는 1192) 때 신노우(親王·태자를 제외한 일본 남자 왕족), 셋칸(攝關·일왕의 정치자문역인 섭정과 관백), 쿠교케(公卿家·권문세가)에서 집안일을 집행하는 자'를 뜻했다고 풀이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원을 따지자면 사무라이라는 낱말에 오히려 '싸운다'는 뜻이 없던 것이다. 헤이안 시대 중기가 되어서야 사부라이는 '무기를 들고 귀족의 경호를 담당하는 자'라는 뜻을 얻게 된다.

## 본문으로 바로가기



회두패 '비광'에 등장하는 오노 도후(小野道風·894~966)가 바로 헤이안시대 인물이다. 오노는 일본 3대 명필로 손꼽힌다. 인터넷 캡처

이후 쇼군(將軍)이 사실상 실권을 장악한 바쿠후(幕府·막부) 시대를 거치며 일본에서는 부시도(武士道·무사도) 문화가 꽃을 피우게 된다. 이 과정에서 발음이 [사무라이]로 바뀐 이 낱말은 “일반 서민(凡下·본계)과 구별되는 신분 호칭으로 기마(騎馬) 복장(服裝) 형벌(刑罰) 등에서 특권적인 대우를 받는 신분”을 뜻하는 단어로 변하게 된다. 그래서 이때도 반드시 ‘사무라이 = 무사’였던 건 아니다. 문관이 사무라이를 자처하며 칼(刀)을 차고 다녔다.

결국 싸울아비가 변해 사무라이가 됐다는 건 멀리가도 너무 멀리 간 주장이다.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